

갤럽리포트 G20231212

2023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한국갤럽은 2007년부터 매년 말 그해를 빛낸 각 분야 '올해의 인물'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이를 위해 11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69명을 면접조사했습니다.

오늘은 스포츠선수를, 이후 예능방송인·코미디언, 탤런트, 영화배우, 대중가수/인기가요 등

분야별 '2023년을 빛낸 인물'을 차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23년 11월 2일~12월 4일
2. 표본추출: 층화 집락 확률 비례 추출
3. 응답방식: 면접조사원 인터뷰(CAPI)
4.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69명
5. 표본오차: ± 2.3 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29.8%(총 접촉 5,930명 중 1,769명 응답 완료)
7.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주요 결과

- 2023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손흥민 7년 연속 1위
-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안세영 2~5위
- 박지성-손흥민 뒤잇는 축구 스타 이강인
- 항저우 아시안게임 활약 선수 부상
- 전 연령대에서 손흥민-이강인 순

2023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손흥민 7년 연속 1위

-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안세영 2~5위

한국갤럽이 2023년 11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69명에게 올 한 해 한국을 가장 빛낸 스포츠선수를 두 명까지 묻은 결과(자유응답), 손흥민이 73.8%의 압도적 지지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강팀 토트넘 홋스퍼의 핵심 멤버로, 2023-2024 시즌을 앞둔 올해 8월 주장으로 선임됐다. 빠른 돌파력과 강력한 양발 슈팅력을 지닌 그는 2021-2022 시즌 EPL 득점왕에 올랐고, 2016-2017 시즌부터 매년 두 자릿수 골을 넣었다. EPL 역사상 8시즌 이상 두 자릿수 득점한 선수는 그를 포함해 단 7명이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주장이기도 한 그는 내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에서 63년 만의 우승에 도전한다.

2위는 올여름 스페인 레알 마요르카에서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강인(27.7%)이다. 그는 2019년 FIFA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한국의 준우승을 견인하며 골든볼(MVP)을 차지했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올해의 유스 선수상 수상, '21세 이하 발롱도르'인 코파 트로피 후보에도 포함돼 세계 최상급 유망주로 도약했다. 그는 어린 시절 출연한 축구 예능 프로그램 <날아라 슛돌이>에서부터 탁월한 기량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3위는 '괴물 수비수, 벽민재'로 불리는 김민재(8.1%)다. 그는 손흥민·이강인과 달리 한국프로축구(K리그, 전북 현대 모터스)를 거쳐 2019년 중국, 2021년 유럽 리그로 진출했다. 2022년 7월 튀르키예 페네르바체에서 이탈리아 SSC 나폴리로 이적, 그해 9월 세리에A '이달의 선수'에 선정될 정도로 단기간에 실력을 인정받았고 2023년 7월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옮겨 맹활약 중이다.

● 2023년을 빛낸 스포츠선수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이름	%	종목	소속팀
1위	손흥민	73.8	축구	토트넘 홋스퍼
2위	이강인	27.7	축구	파리 생제르맹
3위	김민재	8.1	축구	바이에른 뮌헨
4위	황희찬	4.8	축구	울버햄튼 원더러스
5위	안세영	4.1	배드민턴	삼성생명
6위	류현진	3.9	야구	토론토 블루제이스
7위	김연경	3.7	배구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8위	신유빈	3.2	탁구	대한항공
9위	김하성	2.4	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10위	우상혁	2.0	높이뛰기	용인특례시

질문)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을 가장 빛낸 스포츠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답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

- 2023년 11월 2일~12월 4일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69명 면접조사(CAPI). 한국갤럽

4위는 프리미어리그 황희찬(울버햄튼 원더러스, 4.8%), 5위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4.1%)이다. 메이저리그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 3.9%, 6위), '배구황제' 김연경(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3.7%, 7위), 항저우 아시안게임 탁구 금메달리스트 신유빈(대한항공, 3.2%, 8위), 메이저리그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2.4%, 9위), 아시안게임 2연속 은메달리스트이자 세계 최정상급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용인특례시, 2.0%, 10위)이 10위 안에 들었다.

그 외 1.0% 이상 응답된 선수는 조규성(축구, 1.9%), 이정후(야구, 1.5%), 황선우(수영, 1.3%), 박지성(축구, 1.1%)이다. 20위권까지 넓히면 임시현(양궁), 황의조(축구), 이상혁('페이커', e스포츠)(이상 0.9%), 전지희(탁구, 0.8%), 오지환(야구, 0.7%), 강백호(야구), 오상욱(펜싱), 안산(양궁)(이상 0.6%)까지 포함돼 종목 다양성이 더해진다.

박지성-손흥민 뒤잇는 축구 스타 이강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김연아-박지성-박태환이 자리만 바뀔가며 '올해의 선수' 1~3위를 독식했고, 특히 '피겨 전설' 김연아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끝으로 현역 은퇴했음에도 2017년까지 11년 연속 5위권에 들었다.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리그 박지성 역시 2014년 은퇴 후에도 웬만한 현역 못지않게 사랑받고 있다. 손흥민은 이제 그들을 능가하는 독보적 존재다. 2013년 8위로 순위권에 처음 등장했고 2014년 5위, 2015년 1위, 2016년 2위, 2017~2023년 1위로 10년 연속 최상위권이다. 박지성과 손흥민을 뒤잇는 축구 스타로는 이강인이 유력해 보인다.

매년 10위 안은 양대 인기 종목인 축구, 야구 선수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도 축구 선수는 4명이지만, 야구 선수는 2명으로 줄었다. 배드민턴·배구·탁구·높이뛰기 선수가 각각 1명씩 포함됐는데, 모두 지난 9~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한 선수들이다. 이처럼 축구, 야구 이외 종목 선수들의 상위권 진입에는 올림픽 등 세계 대회나 국가 대항 경기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장미란(역도 금메달), 2012년 런던 올림픽 양학선(도마 금메달)과 손연재(리듬체조 개인종합 5위, 역대 아시아 선수 최고 성적), 2016년 리우 올림픽 박상영(펜싱 금메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김은정(컬링 은메달), 2021년 도쿄 올림픽 안산, 김제덕(이상 양궁 금메달), 김연경(배구 4강) 등이 그 예다.

●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2007-2023 (% ,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위		김연아(52.0)	김연아(56.1)	김연아(82.8)	박태환(61.6)
2위		박태환(45.4)	박태환(55.4)	박지성(40.7)	김연아(50.0)
3위		박지성(28.8)	박지성(23.9)	박태환(14.5)	박지성(35.6)
4위		이승엽(11.8)	장미란(21.8)	추신수(10.9)	추신수(16.2)
5위		최경주 (5.2)	이승엽(11.5)	박찬호 (9.6)	장미란 (7.7)
순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위	박지성(57.6)	손연재(37.6)	류현진(51.4)	손연재(42.0)	손흥민(24.4)
2위	김연아(55.9)	박태환(29.1)	김연아(35.2)	김연아(33.3)	손연재(17.5)
3위	박태환(26.0)	박지성(23.7)	손연재(24.9)	류현진(29.1)	추신수(16.9)
4위	이대호 (6.5)	김연아(23.0)	박지성(18.8)	박태환(24.5)	김연아(15.1)
5위	박주영 (5.4)	양학선(16.3)	추신수(17.0)	손흥민(12.9)	기성용(13.1)
순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위	손연재(29.8)	손흥민(38.1)	손흥민(63.3)	손흥민(82.0)	손흥민(79.7)
2위	손흥민(27.3)	김연아(13.4)	류현진(19.2)	류현진(38.7)	류현진(24.3)
3위	박인비(16.6)	류현진(12.8)	조현우 (8.8)	이강인(13.6)	추신수 (6.7)
4위	김연아(14.5)	기성용(10.7)	황의조 (8.4)	추신수 (4.7)	김연경 (6.0)
5위	박상영 (8.8)	추신수 (9.4)	김은정 (7.9)	김연아/기성용(3.9)	이강인 (4.8)
순위	2021년	2022년	2023년		
1위	손흥민(72.8)	손흥민(86.2)	손흥민(73.8)		
2위	김연경(29.4)	김연경 (9.9)	이강인(27.7)		
3위	안 산(10.4)	류현진 (6.4)	김민재 (8.1)		
4위	류현진 (9.1)	이강인 (5.1)	황희찬 (4.8)		
5위	김제덕 (4.1)	김민재 (4.8)	안세영 (4.1)		

- 매년 말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약 1,700명 면접조사. 한국갤럽 www.gallup.co.kr

모든 연령대에서 손흥민-이강인 순

2018년 이후 1~2위로의 선호도 쏠림 현상이 심한 편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2023년 최고 활약 선수로 손흥민을 꼽았고, 그다음은 이강인이다.

● 2023년을 빛낸 스포츠선수 - 성/연령별 (%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사례수 (명)	(1위) 손흥민	(2위) 이강인	(3위) 김민재	(4위) 황희찬	(5위) 안세영	(6위) 류현진	(7위) 김연경	(8위) 신유빈	(9위) 김하성	(10위) 우상혁
전체	1,769	73.8	27.7	8.1	4.8	4.1	3.9	3.7	3.2	2.4	2.0
성 남	880	78	31	9	6	4	4	2	2	3	2
별 여	889	70	24	7	3	4	4	5	4	2	2
연 13~18세	154	72	32	9	5	4	1	2	4	1	2
령 19~29세	250	75	32	9	8	4	2	4	3	2	2
별 30대	243	72	36	7	4	4	3	5	2	3	2
40대	295	73	25	11	4	6	4	4	4	3	2
50대	318	79	24	11	3	5	5	3	4	4	2
60대이상	508	71	24	5	4	3	5	4	3	1	2
남성 13~18세	79	79	38	8	8	2	1	1	2	2	2
19~29세	131	80	31	11	10	3	3	3	4	3	1
30대	126	71	41	12	5	4	2	3	4	2	1
40대	150	80	24	11	6	6	5	1	2	4	1
50대	160	79	26	11	5	5	5	1	3	6	1
60대이상	233	77	32	4	5	3	5	3	1	1	4
여성 13~18세	75	65	26	10	1	6	1	2	6	1	1
19~29세	120	69	34	8	6	4	1	4	2	0	2
30대	117	73	30	3	3	5	5	8	1	3	3
40대	145	67	27	10	2	5	4	6	6	3	3
50대	158	79	21	10	2	5	5	5	5	2	4
60대이상	276	66	18	5	4	3	5	5	5	1	1

질문)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을 가장 빛낸 스포츠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답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

- 2023년 11월 2일~12월 4일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69명 면접조사(CAPI). 한국갤럽 www.gallup.co.kr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02-3702-2571/2622

이 문서에는 네이버 나눔글꼴과 한글과컴퓨터 함초롬체를 썼습니다.